



정치, 사회와의 연관성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 로베르토 M. 웅거의 저작 '정치-운명을 거스리는 이론'이 한국에서 첫선을 보였다. 웅거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미국 법학계에서 1970년대 진보적인 법학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등 사회사상을 비판하며 급진적인 사회이론을 전개했다. 저자는 자신의 작업을 '사회이론'이라 칭한다. 정치, 경제, 법이 사회 구성과 관련해 폭넓은 이론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정치' 역시 정치학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바라본다. 근대 이래 모든 사회사상은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데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어느 사회사상에서도 온전히 구현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일상과 사회구조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비 4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



역사 속 세 가지 종교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충돌, 이스라엘 건국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충돌 분쟁은 언제 끝날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언제 분리되었는지,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각기 주장하는 종교의 기원은 진실인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종교 갈등의 원인을 다룬 책이 출간되었다. 영국의 작가이자 역사학자 톰 홀랜드가 펴낸 '이슬람제국의 탄생'은 세 종교의 본질을 역사적 맥락으로 되짚어본다. 현재 인류는 고대의 마지막 몇 세기에 형성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가운데 하나를 믿고 있는 상황이다. 책은 이슬람교가 신을 새롭게 혁명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제국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아울러 책에는 고대 후기 역사 속으로 지적 모험을 떠나는 독자들을 위해 지도, 연표, 등장인물, 용어 해설이 담겨 있어 이해를 돕는다.

<책과함께 3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파킨슨·알츠하이머... 질병 이름에 사람 이름 붙기까지

마음의 혼란

다우어 드라이스마 지음



"주로 시력이 나빠진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드문 증후군에 관한 글을 읽는 것은 20년이 지나서였다. 그들에게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대개는 사람들의 형상이고, 흔히 실제보다 크기가 작다. 그것들은 황혼이 내리고 사방이 조용해질 무렵 나타난다. 절대적으로 무해한 이 현상을 보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스위스의 박물학자이자 철학자인 사를 보네의 이름을 딴 것으로, 그는 1760년 이런 현상을 최초로 기술한 장본인이었다." (본문 중에서)

18세기 제네바에 살았던 사를 필랭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말년에 자신이 겪은 환영(幻影)에 대한 기록을 노트에 남겼다. 당시 사를 필랭은 왼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한 상태로 시력이 좋지 않았다. 물론 정신은 완벽하고 또렷했다. 그의 손자 사를 보네는 정신을 주제로 쓴 에세이에서 조부의 경험을 언급했다. 후일 이러한 신경 장애에 의한 환시 현상이 '보네 증후군'이라는 정신병리학적으로 공식화된다.

관찰한 바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새로운 현상 증명하고 인정 받아

뇌가 소유자인 것은 '생물학적 존재'이면서 고도의 정신활동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뇌와 관련된 신경질환은 결국 '마음'과 결부된다. 최근 신경질환에 대한 지적 탐구의 여정을 다룬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교 심리학사 교수이자 2003년 유레카상을 수상한 다우어 드라이스마가 '마음의 혼란'을 펴냈다. 책은 신경질환들에 대한 지적 탐구 여정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의 이름을 갖게 된 마음의 병들'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정신의학과 신경질환의 병명을 추적한다. KIST 바이오공학과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의 추천사가 책의 무게감을 더해준다. 정 교수는 "신경질환과 정신질환을 처음 발견하고 그 원인과 증세를 세밀하게 밝힌 '학문적 아버지'들의 치열한 지적 여정"을 그린다고 언급한다. 책은 환시 현상인 보네증후군을 비롯 파킨슨, 알츠하이머병, 클레망보(예정망상증후군) 등 12가지 질환(병명)이 어떻게 붙여졌는지를 탐구한다. 흥미로운 점은 병명의 시조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초의 발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과학이나 수학 분야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이른바 '스티글러의 법칙'으로 불리는 이 같은 현상은 인간사의 이면과 별반 다르지 않다. "꿈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이름을 병명에 붙일 수 있을까.

저자는 자신의 관찰한 바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새로운 현상을 증명하라고 강조한다. 수많은 사례를 근거로 원인을 밝혀내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보네'의 사례는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 전의 일이다. 당시엔 관찰한 내용을 책에 기록한 것만으로도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단순한 기술만으로는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상당수의 유사 사례를 수집해야 하고 연령, 성별, 이미지 내용, 복용약 같은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과학 공동체 내부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도 요구된다. "시조명(병명)은 영예임과 동시에 결투의 정이다. 권력과 권위가 쟁점이 되고, 과학적 증거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분류와 범주화라는 사안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묘책과 조작의 현장이다."

한편 저자는 병명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도 흥미롭게 서술한다. 코르사코프 증후군(알콜로 인한 기억상실), 카프그라증후군(망상적 동일시), 질드라 투렛(강박신경장애) 등에 얽힌 이야기는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부지불식간에 '마음의 혼란'을 겪는다. 이 마음의 병은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각과 행위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뇌가 '소유주'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소유주인 뇌를 다스린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에코리브르 1만7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들의 이야기, 셰익스피어 비극



셰익스피어 인문학

햄릿의 우유부단함, 리어왕의 교만, 오렐로의 질투, 멕베드의 권력에 대한 집착...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나약하고 결함투성이인 인간이 등장한다. 이들의 결함은 사실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감내해야 하는 비극과도 맞닿아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로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꼽는데 주저할 이는 별로 없다. 그의 희곡에 등장하는 명대사는 시공을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준다. 오늘날 셰익스피어를 읽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그의 작품 안에 담겨 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인문학의 입문서이며 해설서인 까닭이다. 한국영미문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가톨릭대학교 영문과 최유훈 교수가 '위대한 치유력' 셰익스피어 인문학'을 펴냈다. 저자는 셰익스피어의 희곡(비극 6편, 희극 14편)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간결하게 다룬다.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위대한 치유력'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인간의 본질과 삶의 방식을 속고 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는 고대의 규칙, 중세적 질서, 이성과 휴머니즘 등 다양한 규범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대의 부조리도 담겨 있어 삶의 이면을 가늠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내면을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을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과 현대성에서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작품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이며, 인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페르소나 1만4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제대로 된 중국 정보에 목 말랐다면...



빠른 성장과 기술발전을 거쳐 이제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중국. 중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중국이 된 것인지 아는 사람은 과연 몇명이나 될까. 막연히 땅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 저절로 성장한 것이라 짐작하는 이들만 있을 뿐이다. 제대로 된 중국이야기를 알려줄 '짜라시의 중국이야기'가 출간됐다. 팟캐스트에 '짜라시'라는 이름으로 방송하고 있는 송명훈이 지난해 5월부터 출연 중인 '새가 날아든다'에서 이야기 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방송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협한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정보에 목말라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은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에서부터 의식주, 경제와 정치 등을 흥미진진하게 알려주며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대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다. <굿플러스북 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대전망과 서,남해안
미래가치 분석

서,남해안 부동산 투자

- 전남도청2차(오룡지구)
- 해남 산이면 위락도시(솔라시도)
- 해남 화원면 대우해양조선

투자가치 판단과 미래분석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세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재테크 상담소 상담전화 ☎(062) 576-7955 ※ 현지 실전전문가 무료상담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전 시공후

외벽 패턴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